



2023 전주 스마트시티 &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스마트시티 전주 혁신방안 모색

전주매일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음 9월 20일) 제33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여정 마무리

무형유산원서 폐막 선언
한중일 문화공연 통해
지속 문화발전 등 도모

우범기 시장 “전주만이
가진 고유 문화자산
더욱 공고히 할 것”



2일 국립무형유산원 열수마루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마무리하는 폐막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시립국악단 무용단이 태평무를 선보이고 있다.

‘천년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
나다’를 주제로 지난 1년간 한·중·
일 3개국의 문화교류를 이끌어온 전주
시가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폐
막행사를 끝으로 가나니 여정을 마무리
했다.

전주시는 2일 국립무형유산원 열수
마루(대공연장)에서 한국·중국·일
본 3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를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마무리하는
폐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전
주 폐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 시즈
오카현의 시부야 히로후미 이사과 정
항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장
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등 한중일 3개
국 관계자들이 각 나라와 도시를 대표
해 참석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비룡을 넘겨받아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경상남도 김해시 관계자들도 대거 참
석해 눈길을 끌었다.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기억하
고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의
‘메모리(Memory)’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폐막식은 전주시립국악단 무용단

의 태평무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이 동아시아문
화도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
선언을 통해 “전주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산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에 알려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
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대미를 장
식하는 파날레 공연에는 국악밴드
‘AUX’가 초청돼 동아시아 3개국 4개
도시의 우호 증진과 동반 성장을 소망

하는 축하 공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이날 폐막 행사에서는 지
난 1년간 수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아카이브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우리 전주
시가 중국의 청두·메이저우, 일본 시
즈오카현과 함께 2023년 동아시아문화
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
진한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자 영광이
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폐막식 행
사를 끝으로 올해 준비한 동아시아문

화도시 사업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각 도시들과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
고, 지속적 교류활동을 이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4
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합
의한 이래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
로,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
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한국, 중국, 일
본 3개국간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
다. /김재훈 기자

‘아너 소사이어티’ 전북 나눔 문화 이끈다

‘2023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17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 웨스턴홀서
신규 가입식·희망나무 퍼포먼스 등 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2023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가 전북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고액가부자 참여 확대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회원의 날 축하공연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의 축사, 전북 아너 회원 경과 보고와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가입식, 희망나무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 다.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는 회원들 간의 원만한 교류를 통해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고액가부자 참여 확대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가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김재훈 기자

달라진 수업, 변화하는 교실

도교육청 ‘2023 수업나눔 박람회’, 내일 전주교대 일원서

2023년 전북도교육청 수업나눔 박람회가 4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달라진 수업, 변화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업사례 공유로 수업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0시 황학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교사교육센터 강의실 야외공간, 체육관에서 주제별 수업 혁신 특강 및 토크쇼, 교과별 수업 시연·수업 공감토크, 수업나눔 전시 부스 등으로 운영된다.

수업나눔에는 초·중등 79팀, 수업사례 전시 부스 30팀, 에듀테크 전시 부스 60팀 등 초·중등 교사 200명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사례를 중점적으로 선보여 AI 기술과 다양한 교육용 SW들이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례로는 △AI챗봇을 활용한 영어 환경동영상 만들기(전주화정중방다미) △구리지역 실화를 찾아 떠나는 답사수업 사례(전주사대부고 백지영)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및 주력재자 수업(산내중 유일환) △챗GPT를 활용한 토론 토의 수업(양현고 송영란) 등이 있다.

더불어 교사교육센터 앞마당에서는 수업고민 상담 등 우수수업 사례와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30개의 전시 부스가 마련됐다.

초등수석교사회의 ‘수업고민 상담 및 수업컨설팅’, 초등성교육연구회의 ‘메타버스(ZEP)를 활용한 성교육/보건수업 사례’, 영양교과연구회의 ‘즐겁게 영양을 가르치다’, 초등수석교사회의 ‘교과별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산출물 전시’, 거꾸로교실 미찾생의 ‘에듀테크 활용 거꾸로 수업 산출물 전시’ 등이 눈에 띈다. /김은성 기자

부안 계화면 육용오리농장서 저병원성 AI 발생

도, 4만2000마리 살처분 조치... 역학 관련 농장 등에 소독·검사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판정을 받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AI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가 확인됐다.

다만, 고병원성 조사에서는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나왔다.

이번 확진판정으로 해당 오리농장이 사유종인 4만2,000마리의 오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됐다.

AI 저병원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변이 가능성이 있어 살처분이 진행됐다.

또한 전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야생조류(3건)와 농장(1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을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기자·부안=김석진기자

전북개발공사

새로운
진보!
함께혁신, 함께 성공

축! 전주매일 창간